

# 경제주평

-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1분기)

# 목 차

## ■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1분기)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2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2
4. 시사점 .....	1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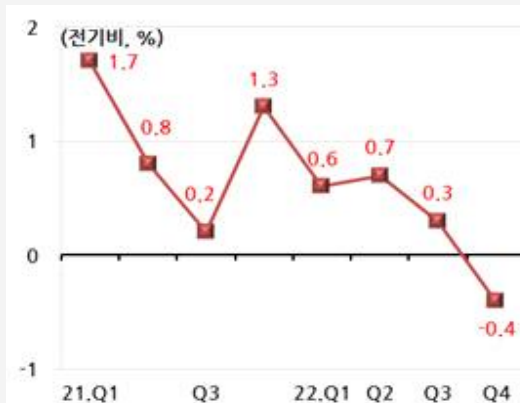
### □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1분기)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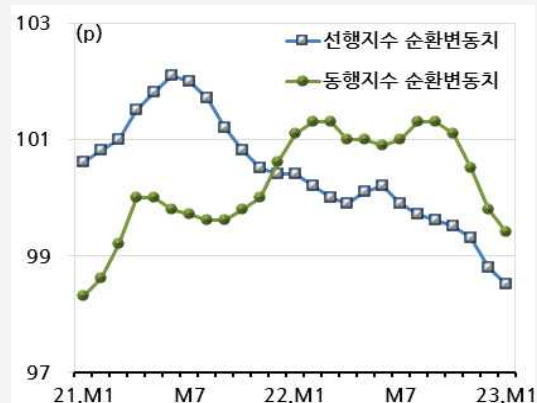
**(경제 성장의 실속)**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경기 전환(침체에서 회복)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2년 4분기 중 민간소비와 외수(순수출) 부문의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Delta 0.4\%$ 를 기록하면서 지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년 2분기( $\Delta 3.0\%$ ) 이후 2년 반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민간소비의 기여도( $0.8\%p \rightarrow \Delta 0.2\%p$ )와, 순수출 기여도( $\Delta 0.7\%p$ )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내수와 외수 모두 불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2년 10월 102.4p를 정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나아가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1년 6월(102.1p) 정점을 형성한 이후 장기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단기간 내 경기 전환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절벽)** 소비 시장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미래 불확실성 확대에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이다. 1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실질 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특히, 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비  $\Delta 2.1\%$ 로 지난 12월( $\Delta 0.2\%$ )보다 침체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나아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모든 소매판매 품목이 일제히 감소하면서 전방위적 소비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 산업 전반의 투자 침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선행 지표들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1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면서 투자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확실성)** 1월에 들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기 방향성은 부정적이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1월에 들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최근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자금 시장 경색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불황 국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경기 양극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품목·시장별로 수출 경기가 뚜렷하게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2월 수출 증가율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침체가 장기화 중이다. 특히, 2월 수출 부진은 물량은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단가가 크게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다. 한편, 시장별로는 미국, EU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對중국 수출 감소가 9개월 연속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 경기 하강을 주도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12.0%), 자동차(47.1%), 이차전지(25.1%)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42.5%), 석유화학(△18.3%), 철강(△9.8%) 등의 품목이 감소하면서 양극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 시장의 질적 악화)**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유희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1월 전체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하락하면서 외형상 고용 시장은 안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1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대비 41만 1,000명으로, 비록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 중이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3.5만 명 감소)과 건설업(3.9만 명 감소)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54.4만 명이 증가하면서 산업 간 노동력 이동이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스인플레이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공공재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확연한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1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원재료, 자본재, 소비재 상승세가 둔화되고 중간재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2년 12월(전년동월대비 8.7%)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1.7%에 그쳤다. 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림수산물, 공산품, 서비스 품목들이 안정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5.1%로 지난 12월의 5.8%에서 하락하였다. 한편,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수도·가스 물가가 급등하면서 전년동월대비 5.2%로 '22년 12월(5.0%)보다 상승하였다.

**(경제 심리 불안 지속)**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 및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물 경기 침체 우려로 민간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0.2p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9개월 연속 기준치(100p)를 하회 중이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1월에 51p에서 2월 48p로 하락하였다. 다만, 2월 향후경기전망 CSI는 60p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멈추었다. 기업 측면에서의 심리지표인 BSI를 살펴보면, 3월 중 한은 BSI와 전경련 BSI가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경련 BSI(전망)는 2월 83.1p에서 3월 93.5p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도 3월 71p로 2월의 68p보다 상승하였다.

##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월 전산업 생산(전월비)은 광공업이 크게 침체되었으나, 서비스업 생산 호조로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제조업)** 제조업은 생산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급락하는 침체 국면이 진행 중이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시장 상황도 급격히 악화 중이다. **(서비스업)**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22년 12월에 이어 '23년 1월에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약화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월 중 토목 부문이 호조를 보였으나, 건축 부문은 침체를 지속 중이다.

### ■ 향후 경기 위험 요인과 경기 전망

#### (1) 경기 방향성 결정 위험 요인

향후 한국 경제에는 ①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②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③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의 경기 방향성 결정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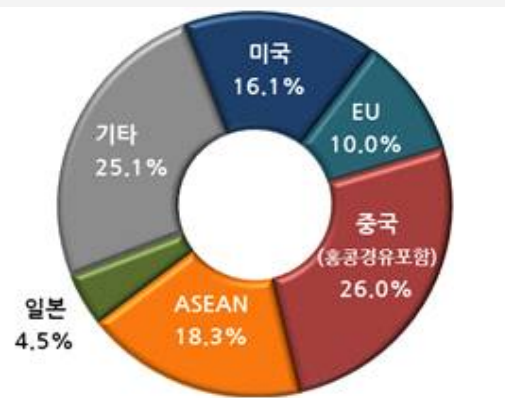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의 회복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기대된다. IMF는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8%p 상향조정하였으며, 미국 성장률도 0.4%p 상향조정한 바 있다. IMF는 리오프닝(reopening)에 따른 중국 경제의 회복과, 견조한 내수시장이 뒷받침되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방향성에 대해 아직 시장 내 확실한 컨센서스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만약,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및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 한국의 시장별 수출비중(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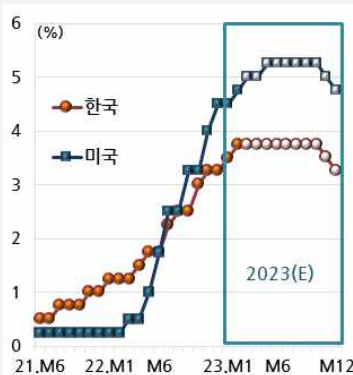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②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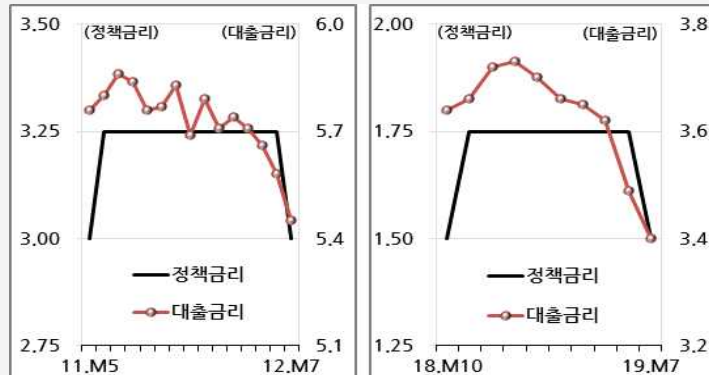
내수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시장금리의 방향이 경제의 안정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통화정책은 실물 경기가 하강하거나 침체하는 국면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확대하여 기업의 활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역행(counter-cyclical)적 기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 조달 차질로 내수시장이 빠르게 냉각 중이다. 다만, 과거 정책금리 인상 시기를 살펴볼 경우, 정책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상단이 유지되었던 사례('11년 6월~'12년 6월, '18년 11월~'19년 6월)를 보면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에 현재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시장에서는 동결 또는 많아야 한 차례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금리가 소폭 하향안정화되면서 시장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 한·미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고금리 지속 기간 대출금리(% ,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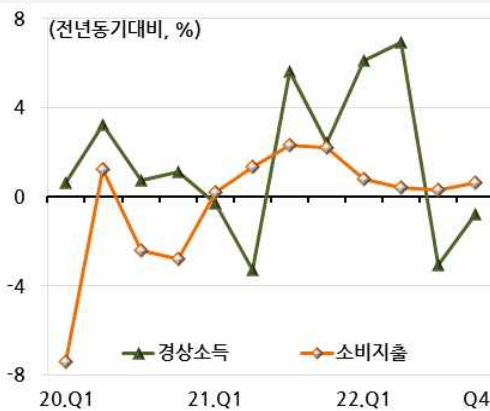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도시.



③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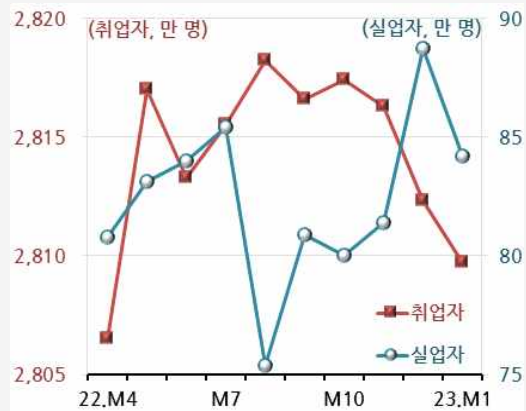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까지의 소비 부진은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핵심 구매력인 소득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소비 침체가 더 깊어지고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즉 고물가·고금리는 가계의 심리적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 감소는 구매력 자체를 훼손하여 본격적인 소비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소득 여건을 보면, '22년 하반기 이후 소득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추세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 가계 경상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율(전국, 1인 이상, 실질) 추이 >



자료: 통계청.

< 계절조정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추이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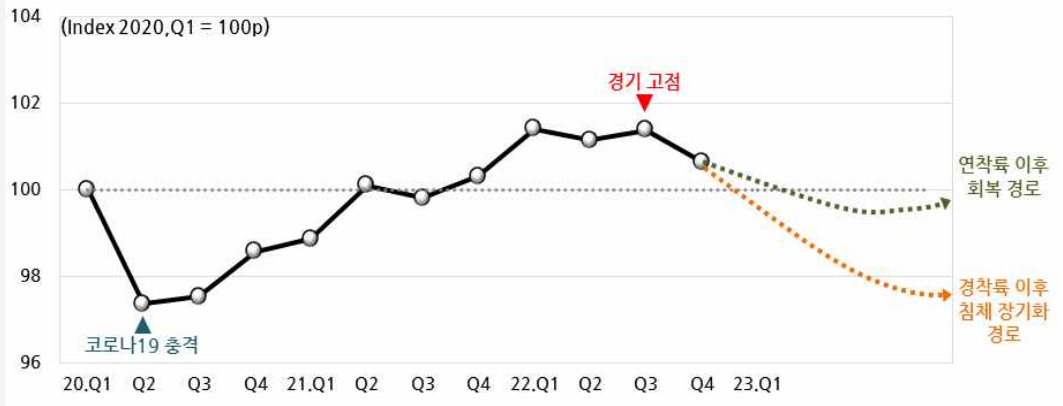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3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 현재 한국 경제는 긍정적 시나리오(연착륙 경로)와 비관적 시나리오(경착륙 경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초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긍정적 시나리오인 연착륙 경로는 상반기까지 대내외 부정적 경제 여건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나,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무렵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부정적 시나리오인 경착륙 경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

제가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특히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하면서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나아가 2024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한국 경제가 성장 엔진을 잃어버려 '실속(失速)'하고 '경착륙(硬着陸)'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두어,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 둘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 구매력의 핵심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창출력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되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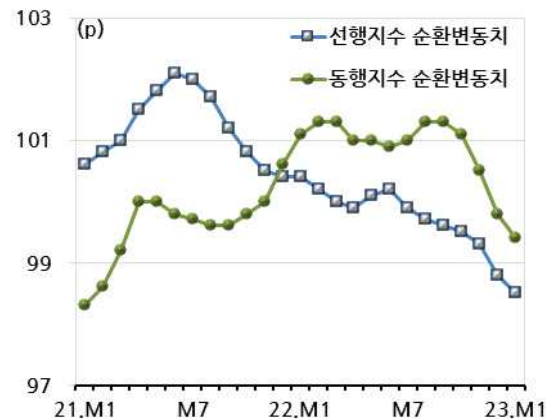
- (경제 성장의 실속)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경기 전환(침체에서 회복)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 '22년 4분기 중 민간소비와 외수(순수출) 부문의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Delta 0.4\%$ 를 기록
    - 4분기 성장률은 3분기의  $0.3\%$ 에서  $0.7\%p$ 나 급감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년 2분기( $\Delta 3.0\%$ ) 이후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다시 기록함
    - 특히, 민간소비의 기여도( $0.8\%p \rightarrow \Delta 0.2\%p$ )와, 순수출 기여도( $\Delta 0.7\%p$ )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내수와 외수 모두 불황 국면에 진입함
  -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는 모습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2년 10월 102.4p를 정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함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22년 11월 100.5p, 12월 99.8p, '23년 1월 99.4p
    -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1년 6월(102.1p) 정점을 형성한 이후 장기간 하락 추세를 지속 중임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22년 11월 99.3p, 12월 98.8p, '23년 1월 98.5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절벽) 소비 시장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향방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이 장기화

- 1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실질 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1월 전월비  $\Delta 2.1\%$ 로 지난 12월보다 침체 폭이 확대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MoM): '22년 11월  $\Delta 2.1\%$ , 12월  $\Delta 0.2\%$ , '23년 1월  $\Delta 2.1\%$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22년 11월  $\Delta 2.2\%$ , 12월  $\Delta 3.1\%$ , '23년 1월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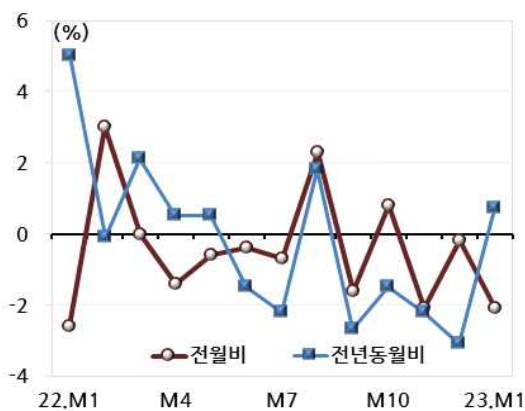
-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모든 소매판매 품목이 일제히 감소하면서 소  
비 절벽이 나타남

· 내구재 소비는 가전, 통신기기·컴퓨터 등이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품목이  
감소하면서 12월(전월비  $\Delta 2.9\%$ )에 이어 1월에도 감소세( $\Delta 0.1\%$ )를 기록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MoM): '22년 11월  $\Delta 2.7\%$ , 12월  $\Delta 2.9\%$ , '23년 1월  $\Delta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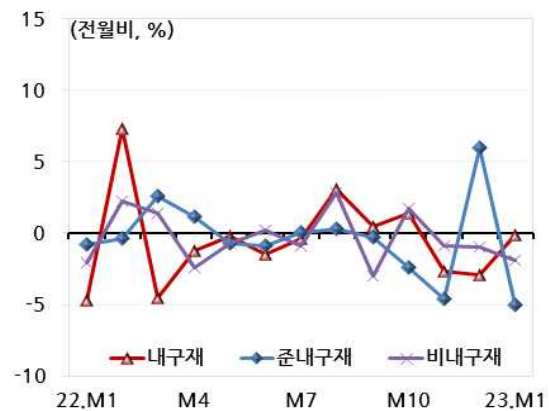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MoM): '22년 11월  $\Delta 0.9\%$ , 12월  $\Delta 1.0\%$ , '23년 1월  $\Delta 1.9\%$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 부진) 산업 전반의 투자 침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선행 지표들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고

- 1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기준 모두 감소세를 기록

· 계절조정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급감하면서 1월 전월비  $\Delta 1.4\%$ 를 기록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QoQ, MoM): '22년 3분기 8.6%, 4분기  $\Delta 0.2\%$ , '23년 1월  $\Delta 1.4\%$

· 1월 중 원계열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년 전과 비교하여 3.9% 감소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2년 3분기 7.5%, 4분기 9.6%, '23년 1월  $\Delta 3.9\%$

-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 및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면서 투자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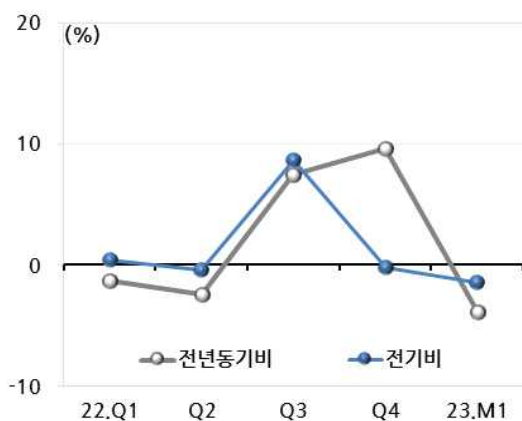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은 '22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22년 11월  $\Delta 12.7\%$ , 12월  $\Delta 7.3\%$ , '23년 1월  $\Delta 1.0\%$

·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 제외)도 '22년 12월에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3년 1월에도 4.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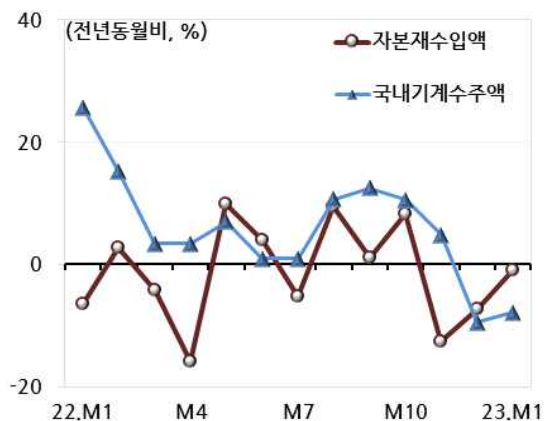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sup>1)</sup>: '22년 11월 16.5%, 12월  $\Delta 35.9\%$ , '23년 1월  $\Delta 4.3\%$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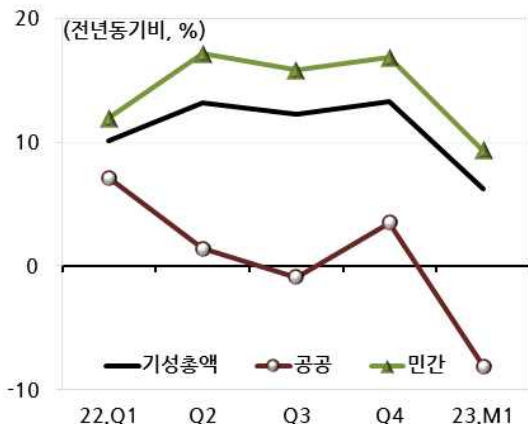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1)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건설 경기 불확실성) 1월에 들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과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기 방향성은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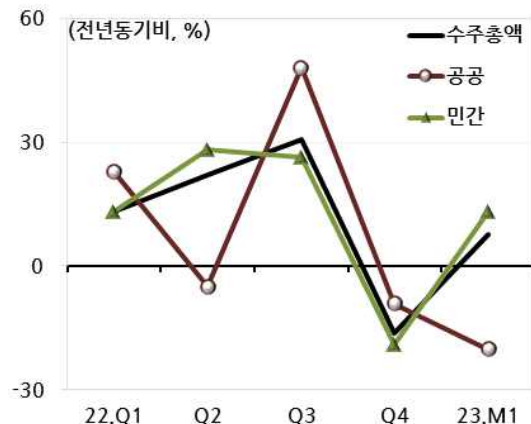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1월에 들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기록
  - 1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6.2%로 증가세를 지속 중임
    - ※ 건설기성 증가율(YoY): '22년 3분기 12.2%, 4분기 13.3%, '23년 1월 6.2%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민간 부문은 증가세를 지속 중임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2년 3분기  $\Delta$ 0.9%, 4분기 3.5%, '23년 1월  $\Delta$ 8.1%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2년 3분기 15.8%, 4분기 16.8%, '23년 1월 9.3%
  
- 한편,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시현
  - 1월 공공 부문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Delta$ 20.2%인 반면, 민간 부문 수주 증가율은 13.2%를 기록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3분기 30.5%, 4분기  $\Delta$ 16.1%, '23년 1월 7.7%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3분기 48.0%, 4분기  $\Delta$ 9.1%, '23년 1월  $\Delta$ 20.2%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3분기 26.4%, 4분기  $\Delta$ 18.9%, '23년 1월 13.2%
  
- 다만, 최근 건설비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위축, 자금 시장 경색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건설 경기는 불황 국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양극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품목·시장별로 수출 경기가 양극화되는 모습

- 2월 수출 증가율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침체가 장기화

· 2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Delta 7.5\%$ 로 지난 10월( $\Delta 5.8\%$ )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수출액 증가율: '22년 11월  $\Delta 14.1\%$ , 12월  $\Delta 9.6\%$ , '23년 1월  $\Delta 16.6\%$ , 2월  $\Delta 7.5\%$

· 한편, 2월 수출 부진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수출 단가 감소가 주도함

※ 수출 물량 증가율: '22년 11월  $\Delta 6.6\%$ , 12월  $\Delta 3.9\%$ , '23년 1월  $\Delta 4.4\%$ , 2월  $\Delta 8.6\%$

※ 수출 단가 증가율: '22년 11월  $\Delta 7.5\%$ , 12월  $\Delta 5.7\%$ , '23년 1월  $\Delta 12.2\%$ , 2월  $\Delta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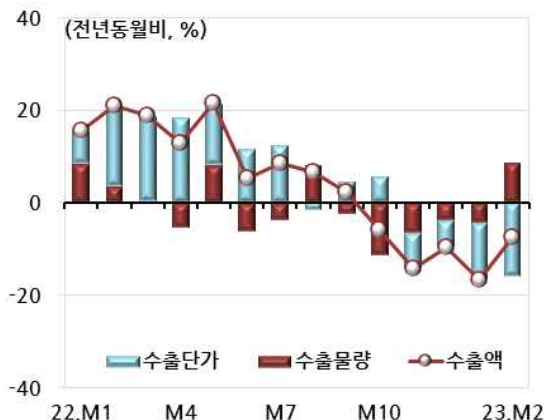
- 수출 대상 시장별로는 미국, EU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對 중국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

· 2월 중 시장별로는 對미국( $16.2\%$ ), 對EU( $13.2\%$ )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최대 시장인 對중국( $\Delta 24.2\%$ )으로의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함

※ 對중국 수출증가율: '22년 11월  $\Delta 25.5\%$ , 12월  $\Delta 27.1\%$ , '23년 1월  $\Delta 31.4\%$ , 2월  $\Delta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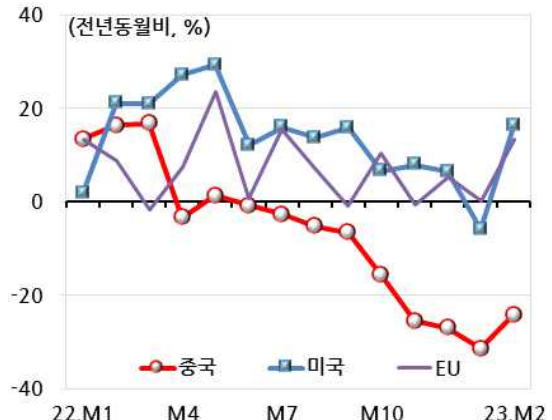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12.0\%$ ), 자동차( $47.1\%$ ), 이차전지( $25.1\%$ )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Delta 42.5\%$ ), 석유화학( $\Delta 18.3\%$ ), 철강( $\Delta 9.8\%$ ) 등의 품목이 감소함

< 월별 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 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 시장의 질적 악화)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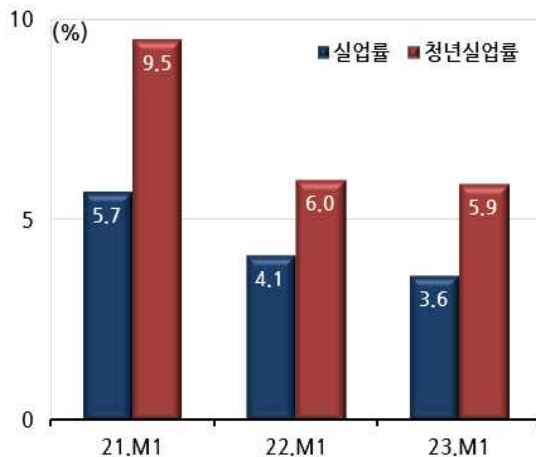
- 1월 중 전체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sup>2)</sup>도 하락

- 1월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22년 1월 4.1%)에서 개선되었으며, 10월 확장실업률도 10.5%로 전년동월의 13.1%보다 하락함
- 한편, 1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5.9%로 전년동월(6.0%)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청년 확장실업률은 16.9%로 전년동월(19.7%)보다 개선됨

- 1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대비 41만 1,000명으로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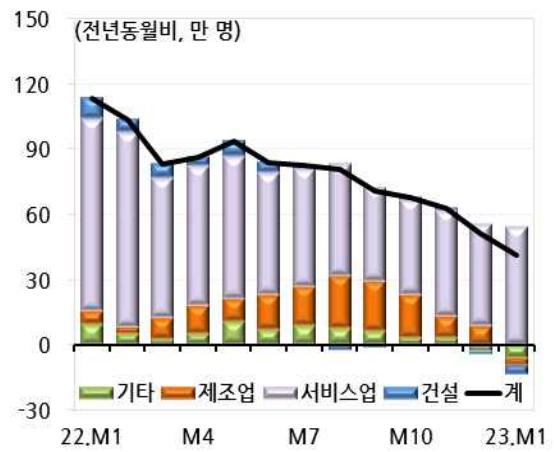
- 1월 중 취업자 수 증감분(전년동월비)은 41.1만 명으로 '21년 3월 이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 취업자 증감(YoY): '22년 11월 62.6만 명, 12월 50.9만 명, '23년 1월 41.1만 명
- 1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3.5만 명, 건설업 △3.9만 명, 서비스업 54.4만 명임

< 2021~23년 1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sup>3)</sup>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2)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3)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 (디스인플레이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공공재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1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연히 낮아지는 모습

· 1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원재료, 자본재, 소비재 상승세가 둔화되고 중간재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2년 12월(8.7%)보다 크게 낮은 전년동월대비 1.7%를 기록함

※ 수입물가 상승률(YoY): '22년 10월 19.4%, 11월 14.0%, 12월 8.7%, '23년 1월 1.7%

· 1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농림수산물, 공산품, 서비스 품목들이 비교적 안정화되면서 전월대비 하락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YoY): '22년 10월 7.3%, 11월 6.2%, 12월 5.8%, '23년 1월 5.1%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2%로 '22년 12월의 5.0%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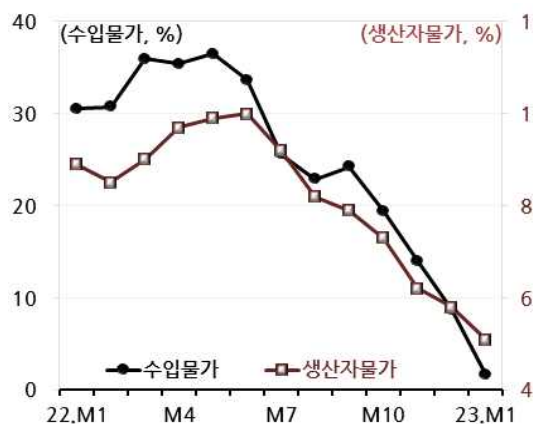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부분 품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었으나, 전기·수도·가스 물가가 급등하면서 전년동월대비 5.2%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YoY): '22년 10월 5.7%, 11월 5.0%, 12월 5.0%, '23년 1월 5.2%

· 체감물가지표인 생활물가 상승률도 12월 5.7%에서 1월에 6.1%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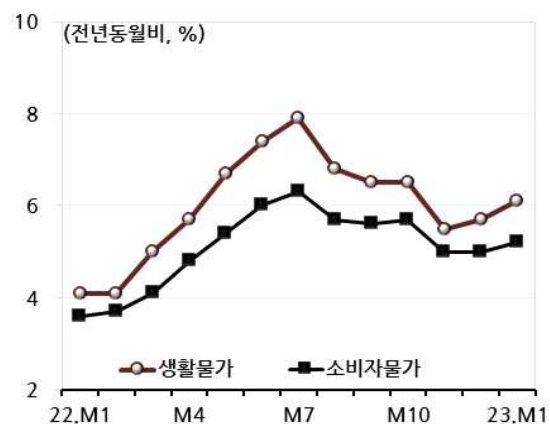
※ 생활물가 상승률(YoY): '22년 10월 6.5%, 11월 5.5%, 12월 5.7%, '23년 1월 6.1%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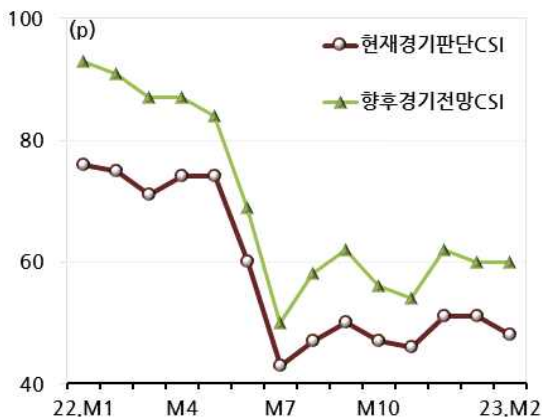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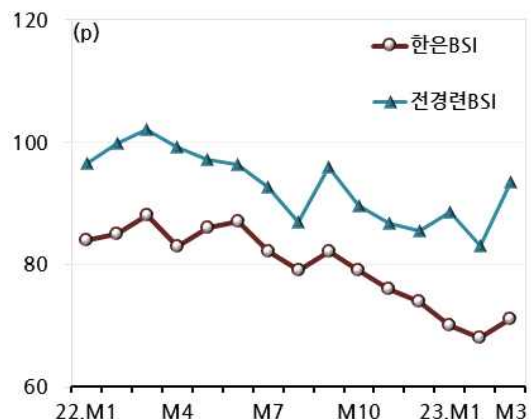
- (경제 심리 불안 지속)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 및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물 경기 침체 우려로 민간 주체들이 체감하는 미래 불확실성이 증폭
-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0.2p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9개월 연속 기준치(100p)를 하회
  -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1월에 51p에서 2월 48p로 하락함
    - ※ 현재경기판단 CSI: '22년 11월 46p, 12월 51p, '23년 1월 51p, 2월 48p
  - 2월 향후경기전망 CSI는 60p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
    - ※ 향후경기전망 CSI: '22년 11월 54p, 12월 62p, '23년 1월 60p, 2월 60p
- 3월 중 한은 BSI와 전경련 BSI가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전월 대비 소폭 상승<sup>4)</sup>
  - 전경련 BSI(전망)는 3월 93.5p로 2월의 83.1p보다 크게 높아짐
    - ※ 전경련 BSI(전망): '22년 11월 86.7p, 12월 85.4p, '23년 1월 88.5p, 2월 83.1p, 3월 93.5p
  -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도 3월 71p로 2월의 68p보다 소폭 상승함
    - ※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 '22년 11월 76p, 12월 74p, '23년 1월 70p, 2월 68p, 3월 71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4) 전경련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의 명목적 기준치는 100p이나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됨.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1월 전산업 생산(전월비)은 광공업이 크게 침체되었으나, 서비스업 생산 호조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

- 1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기록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22년 12월 0.7%에서 '23년 1월에  $\Delta 0.8\%$ 로 하락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22년 11월 1.4%, 12월 0.7%, '23년 1월  $\Delta 0.8\%$

· 그러나,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1월 생산 증가율이 0.5%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 '22년 11월  $\Delta 0.4\%$ , 12월 0.0%, '23년 1월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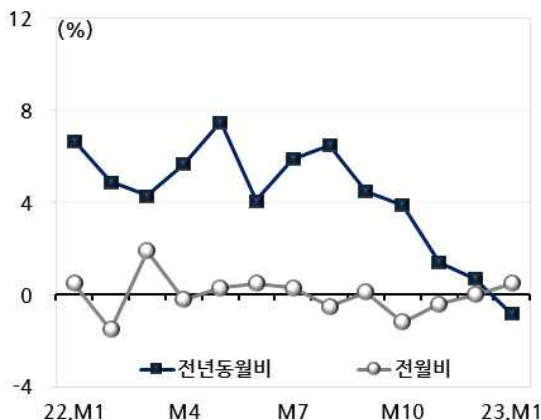
- 1월 중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광공업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1월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Delta 12.7\%$ 로 큰 폭으로 감소함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22년 11월  $\Delta 5.5\%$ , 12월  $\Delta 10.5\%$ , '23년 1월  $\Delta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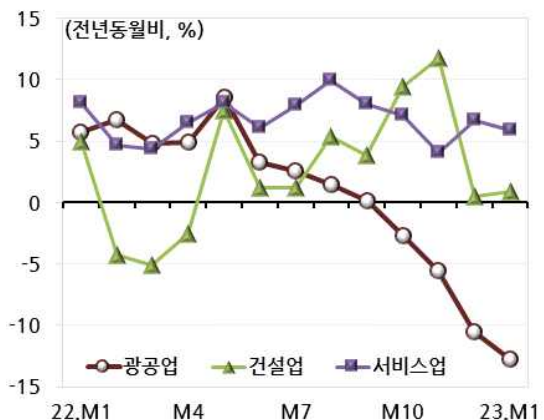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기준 1월 건설업 생산증가율은 0.9%이며,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증가율은 각각 5.9% 및  $\Delta 3.1\%$ 를 기록함

<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급락하는 침체 국면이 진행 중이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시장 상황도 급격히 악화 중

- 최근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평균가동률도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

· 1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전년동월대비 10.9%), 통신·방송장비(35.4%)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Delta$ 33.9%), 전자부품( $\Delta$ 32.6%), 화학제품( $\Delta$ 23.6%)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3.2% 감소함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22년 11월  $\Delta$ 5.7%, 12월  $\Delta$ 11.1%, '23년 1월  $\Delta$ 13.2%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함

※ 제조업 평균가동률: '22년 11월 70.6%, 12월 68.3%, '23년 1월 70.9%

- 출하증가율이 급감하고 재고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수요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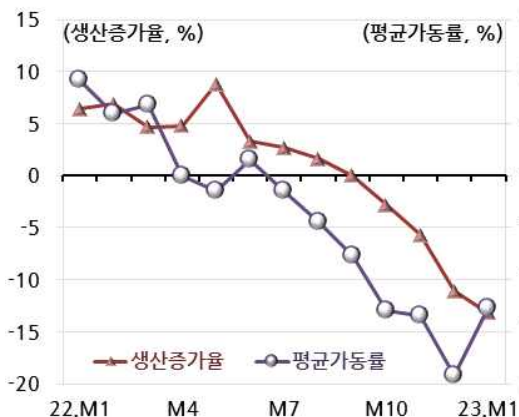
· 1월 제조업 출하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Delta$ 9.8%로, '22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출하증가율(YoY): '22년 11월  $\Delta$ 5.2%, 12월  $\Delta$ 6.5%, '23년 1월  $\Delta$ 9.8%

· 한편, 1월 재고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0.0%로 지난 12월(4.6%)보다 크게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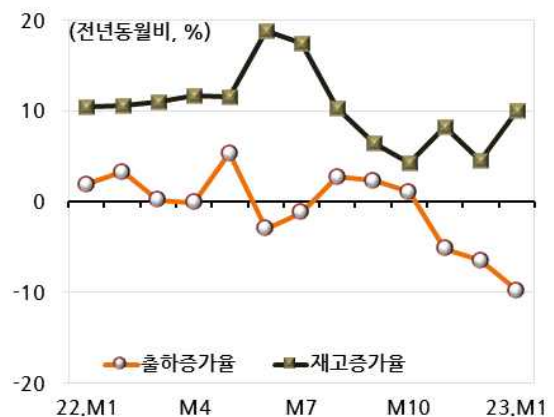
※ 재고증가율(YoY): '22년 11월 8.3%, 12월 4.6%, '23년 1월 10.0%

<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 >



자료: 통계청.  
주: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수주는 미약한 증가세를 기록

- (서비스업)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22년 12월에 이어 '23년 1월에도 소폭이 나마 증가세를 기록

· 전월대비 기준 서비스업 생산은 '22년 12월(전월비, 1.5%)에 이어 '23년 1월에도 0.1%의 증가세를 이어감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22년 11월 4.1%, 12월 6.7%, '23년 1월 5.9%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22년 11월  $\Delta$ 0.7%, 12월 1.5%, '23년 1월 0.1%

· 전월대비 기준으로 1월 중 보건·사회복지(0.9%), 부동산(5.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0.5%) 등이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금융·보험( $\Delta$ 5.0%), 운수·창고( $\Delta$ 2.0%), 숙박·음식점( $\Delta$ 0.3%) 등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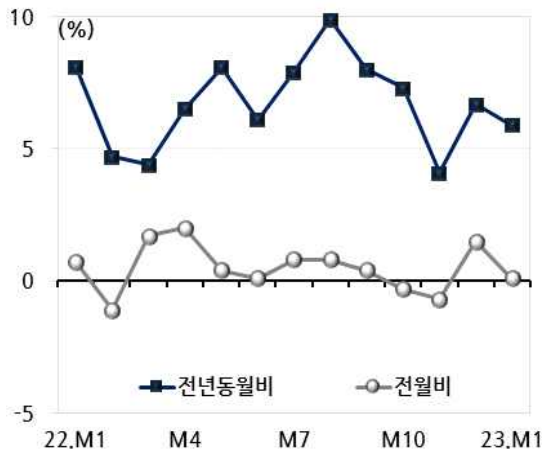
-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월 중 토목 부문이 호조를 보였으나, 건축 부문은 침체되는 모습

· 1월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237.5%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축 부문은  $\Delta$ 41.0%의 감소세를 기록함

※ 토목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3분기 39.9%, 4분기  $\Delta$ 10.9%, '23년 1월 2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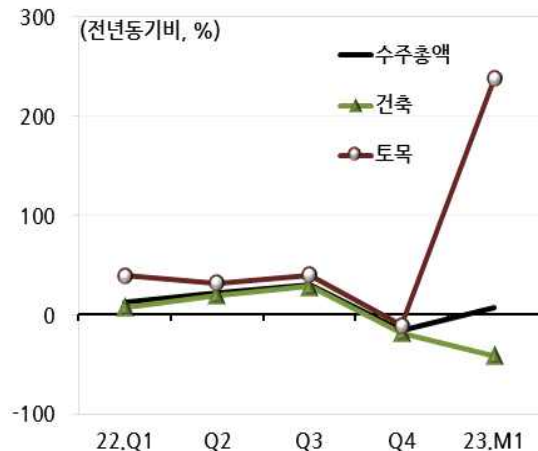
※ 건축건설수주 증가율(YoY): '22년 3분기 28.3%, 4분기  $\Delta$ 18.1%, '23년 1월  $\Delta$  41.0%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축 및 토목 건설수주액증가율 >



자료: 통계청.

###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 향후 한국 경제에는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의 경기 방향성 결정 요인이 존재

#### ①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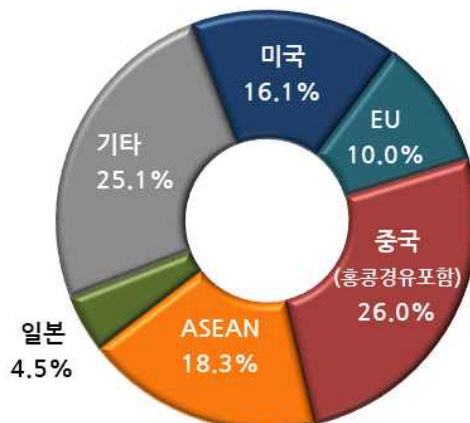
- 미·중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의 회복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을 기대
    - 최근 IMF는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8%p 상향조정하였으며, 미국 성장률도 0.4%p 상향조정함
    - 리오프닝(reopening)에 따른 중국 경제의 회복과, 견조한 내수시장이 뒷받침되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음
    - 다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방향성에 아직 시장의 확실한 컨센서스는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만약,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 경제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음

< 중국 및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IMF.

< 한국의 시장별 수출비중(2022년) >



자료: 관세청.



②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 내수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장금리의 방향이 경제의 안정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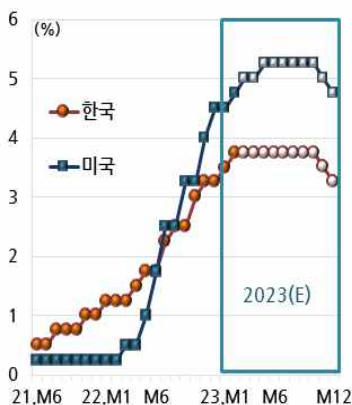
-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통상 통화정책은 실물 경기가 하강하거나 침체하는 국면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확대하여 기업의 활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역행(counter-cyclical)적 기조를 가져야 함
- 그러나, 최근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 경색으로 내수시장이 빠르게 냉각 중임

- 다만,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정책금리의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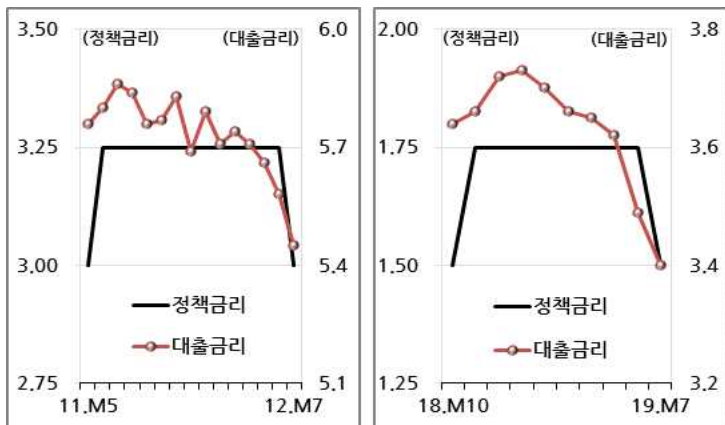
- 과거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상단이 유지되었던 사례('11년 6월~'12년 6월, '18년 11월~'19년 6월)를 보면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됨
- 현재 정책금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시장에서는 동결 또는 많아야 한 차례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소폭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을 기대해 봄

< 한국 및 미국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고금리 지속 기간 대출금리(% ,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추이 >



자료: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도시.

③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 시장이 냉각될 가능성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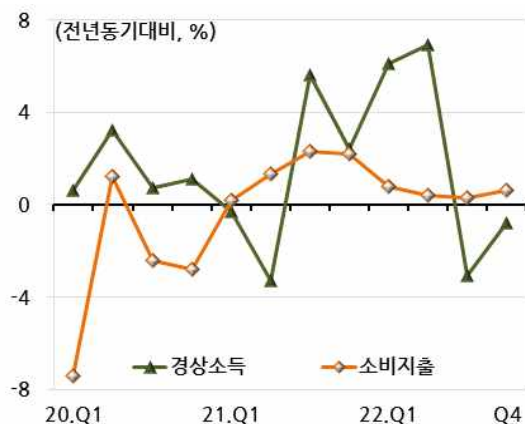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소비 부진은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상 소비지출 증가율(전국, 1인 이상, 실질, 전년동기대비)은 '21년 분기 평균 1.5%에서 '22년 평균 0.5% 수준으로 크게 하락함
-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금리 상승에 따른 비소비지출 규모 증가로 실질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나아가, 구매력의 핵심 원천인 소득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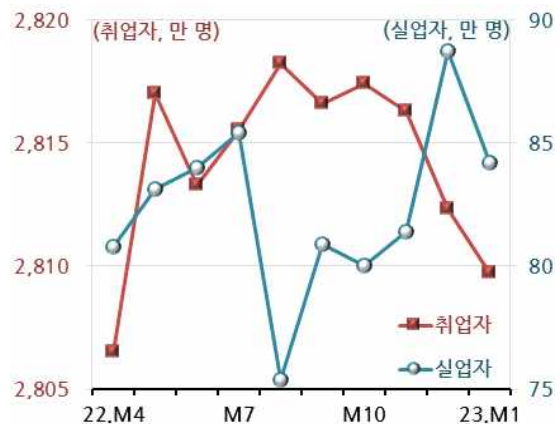
-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악화된 소비 여건에 소득 감소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소비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됨
- 실제 '22년 하반기 이후 경상소득이 크게 위축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관찰됨
  - ※ 경상소득증가율(YoY): '22년 2분기 6.9%, 3분기 △3.1%, 4분기 △0.8%
  - ※ 취업자수(계절조정): '22년 8월 2,818만 명, '23년 1월 2,810만 명

< 가계 경상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율(전국, 1인이상, 실질) 추이 >



자료: 통계청.

< 계절조정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추이 >



자료: 통계청.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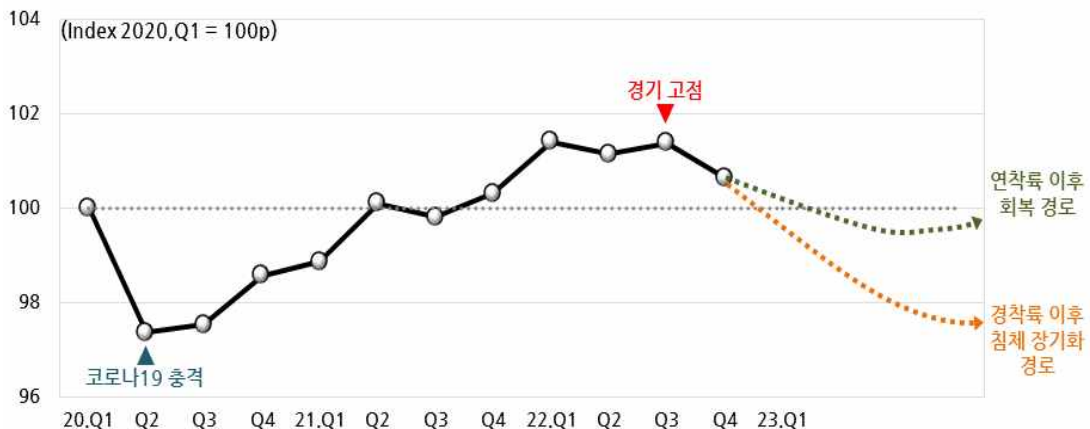
- (현 경기 판단) 2023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

-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또한,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있음

- (향후 경기 전망) 현재 한국 경제는 긍정적 시나리오(연착륙 경로)와 비관적 시나리오(경착륙 경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 **연착륙 시나리오** : 상반기까지 대내외 부정적 경제 여건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나,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무렵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경로임
- **경착륙 시나리오** :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가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특히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하면서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나아가 2024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임

<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4. 시사점

첫째,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두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

-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로 한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경제운용방향의 목표는 '물가 안정'보다 '경기 연착륙'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 실물 경제가 실속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중립적 경로를 선택해야 할 것임

둘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 구매력의 핵심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창출력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하여,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이 강화되고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 최근 품목별로는 이차전자·전기차, 시장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IRA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통해 선제적인 시장 규제 파악 및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 보증 저금리 신용 공여,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및 아세안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민·관 공조의 적극적 마케팅 노력이 요구됨

넷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드런스 제시가 요구되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최근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금리 수준보다는 정책금리가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통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특히, 여전히 신용 경색 문제를 겪고 있는 부동산·건설 부문의 자금 조달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지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한 PF 보증

한도 확대, 긴급 운영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다섯째,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강화, 영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한편, 사회 안전망 전반을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복지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